

맞춤복지 정착 행복도시 조성

남원시, 내년 노인복지 예산 전년대비 113억원 증가 760억원 편성

남원시가 어르신이 행복한 남원을 위해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대비 113억원이 증가한 76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남원시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는 '경로당 조리사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 2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 조리사 지원 사업'으로 30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활동비로 월 27만원을 지원해 경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의 생활 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권을 지급한다. 단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자 및 시설 입소자, 작은목욕탕지역 노인, 미 희망자는 제외되며, 남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목욕장업소 중 원하는 목욕장에서 자유롭게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6,000원 중 4,000원은 남원시

가 지원하고 2,000원은 이용 대상자가 부담하며 연간 10대가 지원된다.

경로당 운영비도 지난해 보다 2곳 늘어난 491개소에 19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사업(171개소, 14억1,00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7개소, 1억2,000만원)도 추진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타지에 있는 보호자에게 안부영상을 촬영 전송하는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이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는 1,80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월 2회 안부영상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사업이다.

두레사랑방을 동절기 4개월 동안(1~3, 12월) 운영했던 것을 5개월(1~3월, 11~12월)로 늘려 운영하며,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했던 것을 5

인 이상일 경우 420만원을 동일 지원하고, 1만7,000여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최대 25만원)을 지급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2,530명(예산 75억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등급 외 A, B 판정자 300여명에게는 가사·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독거노인 282명에게는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을 펼쳐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보행보조기 6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및 관련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절임류 사업 농산물 판로 '청신호'

순창군, 싱그람·한국절임과 사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절임류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농산물 판로에 청신호를 켜졌다.

순창군과 싱그람(주), 한국절임(주)은 26일 황숙주 순창군수와 각 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절임류 사업 발전과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숙주 군수와 싱그람(주) 이경희 대표, 한국절임(주) 강용관 대표는 절임류 사업발전과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과 순창군 출자 기관인 한국절임(주), 절임류 전문업체인 싱그람(주)이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절임류 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순창군은 절임류 사업과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노력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싱그람(주)은 원재료(무 등)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과 절임류 반찬 등을 공동연구하고, 한국절임(주)의 가공품 수탁 판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절임(주)은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와 농산물 1차 가공품 싱그람 납품, 싱그람과 원재료 공동구매 시스템 구



순창군과 싱그람(주), 한국절임(주)은 26일 절임류 사업 발전과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축 등에 적극적 나설 계획이다. 군은 싱그람(주)이 식품업계에서 40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농산물 판매와 가공품 유통망 구축 확대 등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한국절임(주)의 원재료 무 공동구매를 통한 원재료 매입단가 안정화로 연간 구매비용 2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며 "무말랭이 및 매실 등 1차 가공품을 싱그람(주)에 납품해 연간 3억원의 신규 매출

발생 등 연간 5억원 이상의 순익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싱그람(주)은 1976년에 정립해 경북 문경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년 1만5,7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2016년 기준으로 매출액 21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임실산타축제가 겨울철 대표축제로의 위상을 다졌다.

임실산타축제 겨울 대표축제 '히트'

산타플레이시퍼레이드·치즈컬링 등 프로그램 호응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린 임실산타축제가 지난 해 관광객 유치 기록을 갱신하며, 겨울철 대표축제로의 위상을 다졌다.

26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페스티벌 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18 임실산타축제'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첫 축제때 방문한 3만5000여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추운 겨울철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이색축제를 즐겼다.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산타플레이시퍼레이드는 즐거운 음악과 울동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따뜻한 사연과 함께한 '18명의 산타를 찾아라'는 사연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함께한 관광객들에게도 감동을 전해 주었다. 이

튄날인 23일에는 산타경연대회! 내가 산타야!는 1차 예선을 통과한 8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관광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군밤구워먹기, 화덕피자 만들기, 잔디썰매 타기, 치즈요리 나눔행사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형 스노우맨, 풍선트리, 대형 선물상자, 산타조형물 등 다양한 포토존도 축제의 큰 볼거리가 되었다.

심민 군수는 "임실산타축제를 찾아 주신 것을 보고, 겨울철 대표축제로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됐다"며 "내년에는 임실N치즈축제 못지 않게 연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올해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자체 협조강화 방안에 논의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 만들기'

최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팬션 사고가 잇따르면서 순창군이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황숙주 군수는 영상회의에서 안전관리 지자체 협조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군수는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현장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실과장들이 먼저 나서서 건물주나 사업주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여도록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군구청장 2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은 국무총리의 발언과 부처별 안전 보고, 지자체장 토의로 이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치매예방 순회교육 호응

임실군이 찾아가는 치매예방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치매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 꾸준히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예방 순회교육은 임실읍과 관촌, 신령, 강진, 덕치, 삼계면 36개소 경로당과 어르신 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 등 치매관련 3-3-3 교육과 뇌신경체조, 레크레이션, 율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치매예방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따뜻한 삶과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대통령 공약사업 실시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매는 치료시기와 적절한 치료, 치매환자에 우호적인 가정환경 등에 얼마든지 치매를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며 가족, 친인척 등 주위사람들의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체감안전도 도내 1위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018 하반기 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0일말까지 순창군민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범죄·교통사고·법질서 준수도 및 전반적 안전도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를 측정 하였다.

특히 순창경찰은 연초부터 지역치안 방향 설정 및 주민의 소리(VOC)를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찰 활동에 치안력을 집중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 소통형 치안활동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은 "주민 소통형 치안활동을 기반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과 여성안전, 보행자 교통안전 등 주민 불안요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체감안전도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앞으로도 순창경찰은 주민과의 일상소통 강화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